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파커스(065690)

하드웨어/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송나영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파커스[065690]

프린터 부품 및 LED 조명기기 전문기업, 헬스케어 등 사업다각화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박창식
설립일자	1987년 06월 23일
상장일자	2002년 07월 16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주요제품	프린터부품, LED조명기기

시세정보(2021/04/26 기준)

현재가(원)	3,31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461
발행주식수	13,963,509
52주 최고가(원)	3,605
52주 최저가(원)	2,055
외국인지분율	1.52%
주요주주	박창식

■ 프린터 핵심 부품 생산 및 LED 사업 다각화

파커스(이하 ‘동사’)는 1970년 오디오 및 비디오용 고무벨트 국산화를 시작으로 50년 이상 전자제품용 고무제품 생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프린터 사업부의 주력 제품은 롤러와 블레이드류로, 프린터의 토너량을 일정하게 공급하고 잔류 토너를 청소하며 토너 가루를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롤러와 블레이드뿐만 아니라 2017년 현상기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부품 생산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 국내 LED 산업의 태동기부터 시장에 참여하여 LED 패키지, 조명 및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시장의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라인업하고 있다.

■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동사는 프린터 부품, LED 패키지, 조명 및 헬스케어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생산 기술에 오랜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공정 효율화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확대 및 수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HP 사의 레이저 프린터 신규 모델에 대한 부품과 함께 컬러 레이저 프린터 장착용 카트리지 등의 부품을 개발 및 공급하였다.

■ 차별화된 LED 기술을 통한 사업 다각화

LED 사업부는 가정용 조명브랜드인 ‘오브라이트(Oh!Bright)’ 와 LED 파장을 이용한 헬스케어 브랜드인 ‘알록(Aalok)’ 을 보유하고 있다. 보급형 조명제품과 함께 IT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LED 조명을 출시하였고, LED 광원을 이용한 피부관리기, 체지방 분해기를 상용화하였다. 또한, UV-C 파장 대역을 이용한 살균 제품을 개발하여 2021년 국제전자박람회(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홈케어 제품 및 살균 제품의 수요 증가로 동사의 LED 응용 제품에 대한 판매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1,002	55.2	22	2.2	45	4.5	5.0	3.8	28.3	327	7,040	9.8	0.5
2019	1,008	0.6	(41)	(4.1)	(38)	(3.8)	(4.1)	(3.2)	42.6	(255)	6,234	N/A	0.5
2020	783	(22.3)	(22)	(2.9)	(88)	(11.2)	(10.6)	(7.8)	46.1	(592)	5,575	N/A	0.5



기업경쟁력

사업 부문별 연구개발 조직화

- 프린터사업부, LED 사업부, 조명사업부로 조직을 별도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

- 고무배합, 원료 개발, 코팅, 우레탄 성형기술 등의 공정기술 노하우 보유
- 지속적인 R&D 투자로 신제품 라인업
-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진입장벽 구축

시장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확대

- 글로벌 프린터 제조사(HP)에 제품 공급
- 자체 브랜드 '오브라이트' 및 '알록' 출시



관련 사업 분야 시장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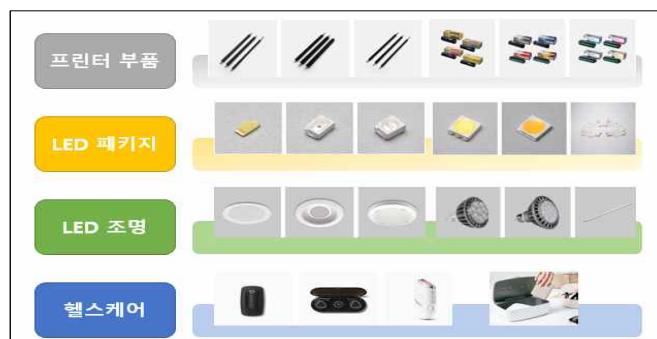
- 세계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성장 지속
- LED 조명 산업의 꾸준한 점유 확대
- 헤althcare 제품의 수요 증가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Sus blade 레이저 용접 기술 개발
- Ionic conductive rubber foam 롤러류 개발
- Automatic laser welding fixture 개발
- Pinch roller automatic assembling M/C 개발
-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조명
- LED 파장을 이용한 헬스케어 제품

적용제품



최근 변동사항

생산 인프라 확대

- 중국의 프린터 카트리지 완제품 생산업체를 인수 및 HP 사에 카트리지 완제품을 납품
- 산업용, 주거용, 차량용 등 다양한 LED 제품 생산

LED 응용 제품 출시로 사업 다각화

- LED 파장을 이용한 피부관리기, 살균소독제품 출시
- 원격 조명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제품 출시



I. 기업현황

국내 최대 프린터 부품 제조 기업

파커스는 프린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프린터 제조기업에 제품을 공급하여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외 프린터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개요

파커스(이하 동사)의 전신은 1970년 3월 설립된 대진산업사이며, 프린터 제품에 들어가는 고무롤러, 블레이드류 및 카트리지와 LED 패키지, 조명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87년 6월 법인 전환 후, 2019년 12월 현재의 사명인 파커스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박창식 대표이사이며, 2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외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박영태 부사장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율은 44.05%이다. 중국 위해시에 프린터부품을 제조하는 위해대진전자유한공사, 위해아커디스전자유한공사 해외법인이 있으며,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홍콩 소재의 DAEJIN DPS LIMITED와 국내 소재의 (주)파커스메가팩토리가 있다.

표 1. 동사의 관계회사

업체명	주요사업
(주)파커스메가팩토리	투자
위해대진전자유한공사	프린터부품 제조
위해아커디스전자유한공사	프린터부품 제조
DAEJIN DPS LIMITED	투자

*출처: 2021년 사업보고서

표 2 동사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박창식	21.37
박영태	7.39
박연숙	4.68
박현우	4.60
합계	100.00

*출처: 2021년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 정보

박창식 대표이사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1988년 동사에 입사 후, 기술 및 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7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조명장치, 광 치료장치 기술의 특허 발명가로 확인되며, 국내 사물인터넷(IoT)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IoT Awards 2019’ 시상식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 사업 분야 및 제품군

동사는 1970년부터 전자제품용 고무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프린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프린터용 롤러 및 블레이드를 생산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02년 광사업부를 신설하여 LED 조명시장에도 진출하였고, LED패키지와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를 개발하였으며, IoT를 접목시킨 스마트 조명 및 뷰티 헬스케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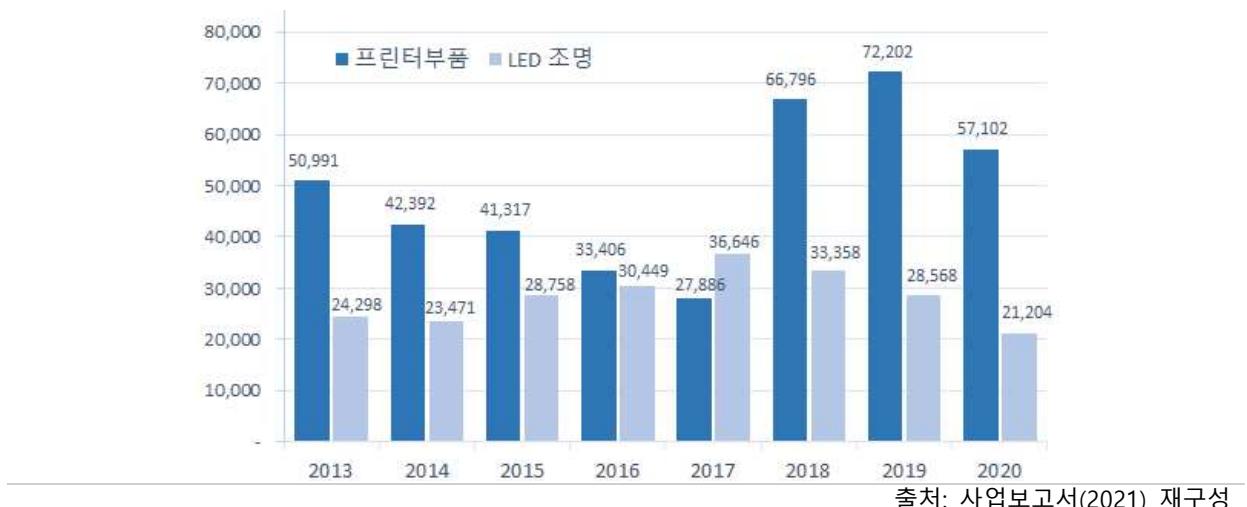


출처: 파커스 홈페이지 재구성

■ 사업 분야별 매출 비중

프린터 부품 사업은 2017년까지 매출 하락세를 지속하다 2018년 HP 사의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 인수를 통한 레이저 프린터 성장 전략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고, 동사는 국내 최대 프린터 부품 공급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 아코디스의 중국 법인과 대체전자를 인수하였다. 롤러와 블레이드뿐만 아니라 레이저 프린터용 현상기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재무 기준 프린터 부품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72.9%이며, LED 사업부는 27.1%로 확인된다. 프린터 사업부의 성장세와 더불어 LED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시현을 지속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매출 변화 추이(단위: 백만 원)





II. 시장 동향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프린터 산업

레이저 프린터를 중심으로 세계 프린터 산업은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LED 사업 부문과 관련한 응용 조명제품 및 뷰티 디바이스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 프린터 산업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프린터 관련 품목은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임팩트(충격식) 프린터 및 기타 비충격식 프린터로 구분된다. 국내 프린터 시장은 2014년 4,643 억 원에서 2018년 5,533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2019년 프린터 시장은 다소 위축되었다. 클라우드 기술과 모바일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프린터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프린터 시장 내에 속도가 빠른 레이저 프린터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HP, 신도리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한국후지제록스, 한국엡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3. 국내 프린터 시장규모(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년) 재구성

■ 국내 프린터부품 산업 현황

프린터는 인쇄하는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레이저 광선과 정전기력을 이용한 레이저 방식, 작은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출시키는 잉크젯, 열을 이용한 직접 감열 및 열전사 방식이 있다. 각 프린터는 롤러, 블레이드, OPC 드럼 등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컴퓨터 프린터 부품 시장은 2015년 592억 원 시장에서 2019년 845억 원으로 연평균 9.30% 성장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림 4. 국내 프린터 부품 시장규모(단위: 억 원)



■ 세계 레이저 프린터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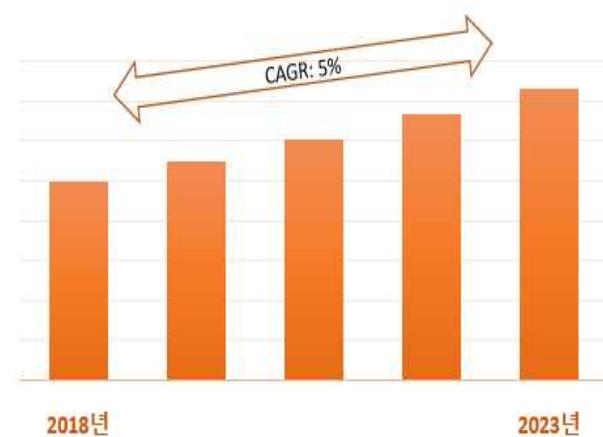
파커스는 HP 사에 프린터 부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각각의 품목별로 국내 및 일본 기업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프린터는 A4용지까지 지원하고, 기업용은 A3용지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동사는 가정용 및 기업용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 부품을 생산하며, 레이저 프린터(모노 및 컬러), 복합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이 주력 제품이다. 또한, 2020년 결산 재무 기준, 프린터 부품 사업의 수출 비중은 90% 이상으로 확인된다. 시장조사기관인 Technavio(2020)에서 공개한 2020년 세계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2019년 대비 4.25% 성장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의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프린터 산업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점유율이 55%로 조사된다.

그림 5. 지역별 프린터 시장 성장 추세



*출처: Mordor Intelligence(2020)

그림 6. 세계 레이저 프린터 시장 전망



*출처: Technavio(2020) 재구성



■ 국내 LED 조명장치 시장 현황

세계 LED 조명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의 경우 광 변환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은 친환경적인 LED의 특성을 기반으로 가정, 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LED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19년 LED 전등 출하금액은 2015년 9,494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을 4.37% 증가한 1조 1,265억 원으로 확인된다.

그림 7. 국내 LED 전등 시장규모(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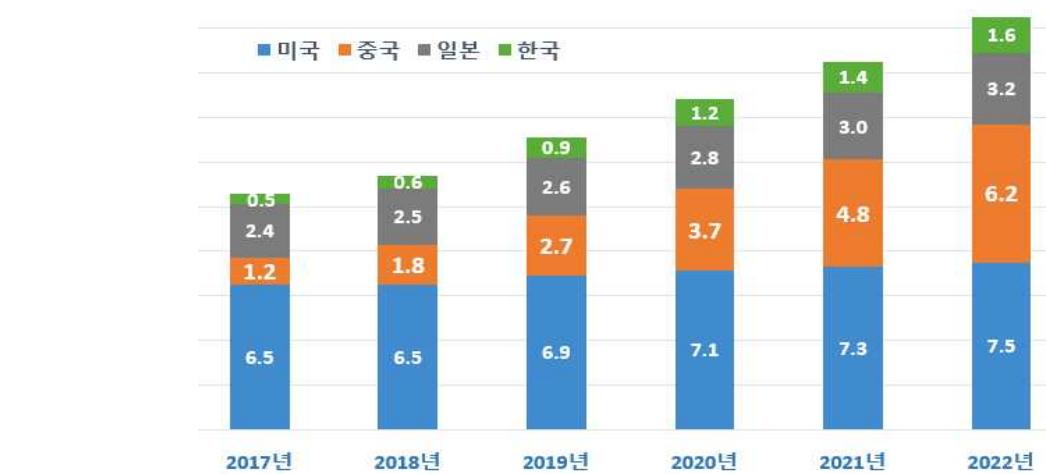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0년) 재구성

■ 뷰티 디바이스 시장 현황

파커스는 가정용 LED 조명 브랜드인 ‘오브라이트’를 출시하였고, IoT 기술을 활용한 조명과 LED 광원을 활용한 의료기기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휴대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국내외 화장품 제조기업들의 시장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미국이 점유율이 가장 높고, 2022년 국내 시장은 1.6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8. 국가별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시장 추정(단위 : 조 원)



출처: BNK 화장품 산업분석리포트(2019) 재구성



III. 기술분석

프린터 부품 제조 핵심기술 보유

파커스는 고무 배합기술을 기반으로 프린터의 룰러, 블레이드 제품 생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LED 패키지, LED 조명 및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레이저 프린터의 원리 및 구조

프린터는 미세한 펀을 이용하여 잉크가 묻은 리본을 물리적인 충격으로 가하는 충격식 프린터와 액체 잉크를 미세한 노즐로 분사하여 용지에 정착시키는 잉크젯(Inkjet) 프린터, 레이저 광선과 정전기력을 이용한 레이저(Laser) 프린터가 있다. 잉크젯과 레이저 프린터는 주로 가정과 사무용에 사용된다. 레이저 프린터는 탄소 토너를 이용하며, 인쇄할 자료를 레이저 광으로 바꾸어 반사경을 광전 드럼에 비춘다. 동작 순서는 대전→노광→현상→전사→크리닝으로 진행되며, 정전기 발생부에서 드럼 표면에 음극을 띠게한 후 인쇄할 정보 부분만 광학부에서 레이저 빔을 반사해 반사경을 통해 드럼에 주사한다. 반사된 레이저 빔은 드럼 표면에 형성된 음극을 없애고 잠상(潛像)을 만든다. 현상기에서 토너 가루가 드rum으로 이동할 때 드럼에서 음극이 없는 부분에만 토너가 묻게 되고, 전사기를 통해 종이 이면이 양극을 띠게하여 드럼 표면에 붙어있는 음극의 토너를 종이쪽으로 당기면서 종이 위에 인쇄가 된다. 마지막으로 우레탄 고무로 된 블레이드 날을 드럼 표면에 접촉시켜 전사한 후에 드럼에 남아있는 토너를 제거한다.

그림 9. 레이저 프린터의 원리



출처: This Photo Printer(2015), 'what needs think about laser printers?' 재구성

■ 레이저 프린터용 핵심 부품 생산기술력 확보

동사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대전성능을 향상하고, 잔류 토너 청소 및 토너 가루를 이송하는 블레이드(Sus Blade, Cleaning Blade 등)와 룰러(Supply Roller, Deve Roller 등)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레이저 프린터용 현상기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블레이드, 룰러와 더불어 현상기 부품까지 생산하여 프린터 부품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였다. Sus Blade의 경우, 레이저 용접에 의한 블레이드 접착기술을 적용하여 열에 의한 용착으로 접



착하는 방식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을 강화하였다. 고무제품 국산화 기술개발 및 차별화된 고무 배합기술, 고무원료 개발, 세라믹 코팅 기술, 우레탄 성형기술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및 생산성을 강점으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대량납품을 하고 있다.

그림 10. 파커스의 프린터 부품



출처: 파커스 홈페이지

■ LED 기술 응용을 통한 사업 다각화

▶▶ LED 패키징 기술 보유

LED 패키지는 에피(Epi), 칩(Chip), 리드프레임(Lead-Frame), 본딩와이어(Bonding Wire), 봉지재, 방열판 등으로 구성된다. 패키지의 핵심기술은 광 효율 향상, 특성 편차 제어, 지향 각 및 색 좌표 제어 등이 있으며, 이들 특성은 상보적 관계(Trade-off)이므로 제품의 사양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 동사는 조명용, 가전용, 자동차용, 헬스케어용 LED 칩 패키지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일본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그림 11. 파커스의 LED 패키지 제품



출처: 파커스 홈페이지



▶▶ LED 조명 및 헬스케어

파커스는 LED 패키지 기술을 기반으로 LED 조명과 LED를 이용한 헬스케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산업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 환경에 따라 개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술을 통한 시장 진입을 위해 프리미엄 LED 조명제품 브랜드인 ‘오브라이트’를 런칭하였다. 실내 공간의 색온도 및 조도를 제어하는 조명시스템을 개발하여 건물 내의 천장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모드에 따라 색온도 및 조도를 조절함으로써, 최적화된 조명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LED 파장을 이용한 헬스케어 브랜드 ‘알록(Aalok)’을 출시하여 근적외선 LED 파장을 이용한 헬스케어 제품(알록 Fat Melt)과 RGB 파장에 따른 광 피부관리기(알록 스노우핏) 등을 상용화하였다.

그림 12. 파커스의 LED 조명 및 헬스케어 제품



출처: 파커스 홈페이지

■ 최신 특허 기술

파커스는 LED 조명 및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7월 원터치 탈부착식 천정 부착형 조명기구에 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 기존의 천장 부착형 조명장치가 지닌 시공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공구 없이 탄성단자부와 탄성후크부를 이용한 원터치 끼움 방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개발하였다.

그림 13. 원터치 탈부착식 천장 부착형 조명기구



출처: KIPRIS(10-2134914)



■ SWOT 분석

그림 14.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작성

▶▶ (Strong Point) : 오랜 업력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1970년 설립된 대진산업사는 파커스의 모태로, 전자제품용 고무부품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였고, 동사는 고무배합 공정 노하우를 통해 프린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프린터 제조기업에 롤러류 및 블레이드류와 현상기 세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였고, 중국 위해시에 위치한 동사의 현지법인인 대진전자(프린터 단품제조), 대해전자(프린터 사출성형), 아케디스(프린터 카트리지 제조)를 통합하는 통합공장(약 2만평)을 증축하였다.

또한, 2002년 LED 패키지 사업을 시작으로 가정용, 산업용 LED 조명과 LED 파장을 이용한 헬스케어 및 뷰티 디바이스 제품을 출시하여 LED 관련 응용 제품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Opportunity Point) : 전방산업의 수요 지속

동사는 글로벌 프린터 제조기업인 HP 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HP 사는 세계 프린터 시장 내에서 기업용 프린터의 꾸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A3 레이저 프린터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의 제품 개발 투자는 프린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동사의 매출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LED 조명 기술은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나, 꾸준히 시장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IoT 기술을 연동한 스마트 조명제품 등의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동사는 프리미엄 LED 조명을 상용화하고, LED를 이용한 체지방 분해기, 피부관리기 등의 홈케어 제품을 출시하였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가정용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내외 화장품 제조사 및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헬스케어 및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 (Weakness Point) : 주요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프린터 부품 사업의 제품 매출 비중이 72.9%로 확인된다. 삼성전자가 프린터 사업부를 HP 사에 매각하면서 동사는 프린터 부품을 HP 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인 HP 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거래처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해 단일 업체의 높은 매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 (Threat Point) : 환율 변동 위험과 LED 조명 산업의 경쟁 심화

동사의 주요 제품은 내수 시장보다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환율 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LED 조명 교체 정책으로 공공 부문의 LED 조명 사용이 증가하였고, 가정용 조명은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재로 경기 변동의 영향이 미비하나, 건설, 자동차, 광고 산업 관련 조명기기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내 조명 산업은 다수의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고, 조명의 단가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기업들의 기술 차별화를 통한 시장 진입이 필수적이다.



IV. 재무분석

프린터용 부품사업부의 부진

동사는 프린터용 부품사업부와 LED조명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린터용 부품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72.9%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프린터용 부품사업부의 매출이 전년대비 20.9% 감소한 571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이 2019년 1,008억 원에서 2020년 783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 매출 감소 및 손실 지속

동사는 프린터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고무 룰러, 블레이드류 및 카트리지와 LED PKG, LAMP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중인 업체로 HP향 프린터용 부품의 공급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Chip LED 및 조명 수주도 위축됨에 따라 2018년 1,002억 원(55.2% YoY)에서 2019년 1,008억 원(0.6% YoY), 2020년 783억 원(-22.3% YoY)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매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원가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 확대 및 외형 축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가중과 중국공장 화재에 따른 손실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2018년 2.2%, 2019년 -4.1%, 2020년 -2.9%, 순이익률은 2018년 4.5%, 2019년 -3.8%, 2020년 -11.2%로 최근 2년간 손실을 지속하며 미흡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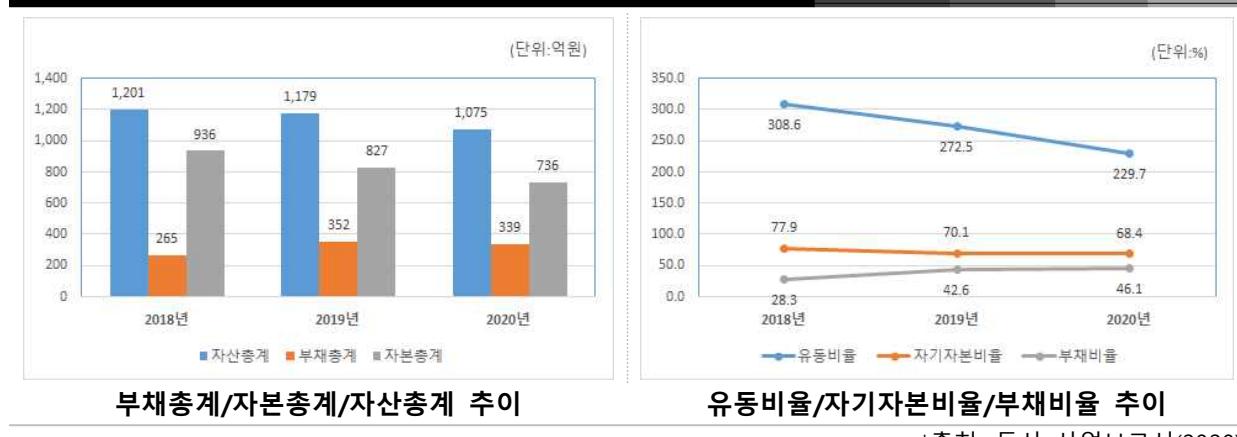
그림 15. 동사 연간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그림 16. 동사 연간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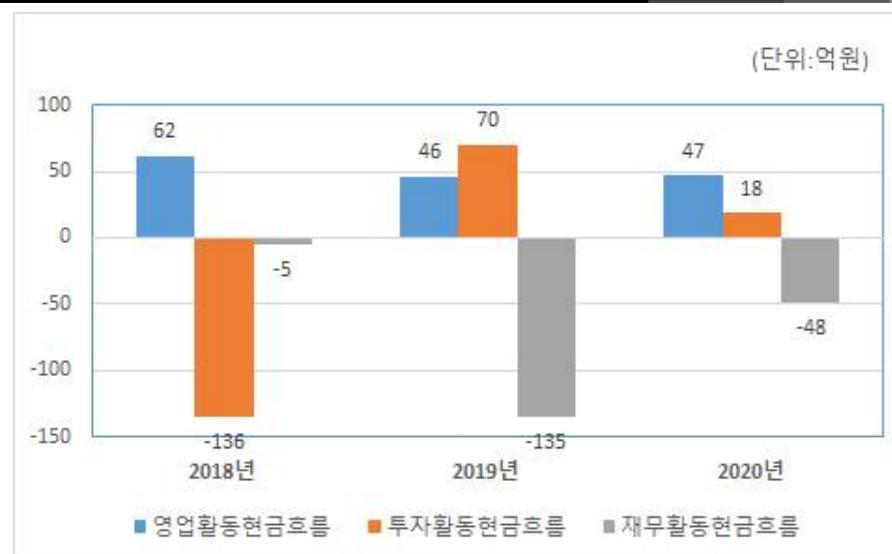
■ 재무구조 저하

동사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손실 발생으로 자본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매입채무 등의 감소로 부채규모도 축소되어 자기자본비율 68.4%, 부채비율 46.1%, 차입금의존도 15.4%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재무구조가 저하세를 보이고 있다.

■ 양호한 현금흐름 시현

동사의 현금흐름은 2020년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 가산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47억 원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설비투자, 배당금 지급, 차입금 상환 등의 소요자금을 충당하며 양호한 자금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17.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프린터 부품 생산역량 강화 및 LED 응용 제품군 출시

롤러, 블레이드, 현상기 세트 등의 핵심 부품 공급을 위한 중국 통합공장을 2018년 하반기 준공하였으며, LED 사업의 제품군 확대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 프린터 핵심 부품 생산기술력 강화

파커스는 국내 최대 프린터 부품 생산 기업으로,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등 전 부문에 포함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전 공정 생산 내재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고무원료 개발, 세라믹 코팅 기술, 우레탄 성형기술, 용접에 의한 블레이드 접착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원자재 수급 안정성을 위해 우레탄 생산 기술을 국산화하였다. 또한, 2017년 HP 사는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가 강점으로 보여왔던 레이저 프린터 핵심기술을 내재화하였고, 550억 달러(약 61조 원) 규모의 A3 복합기 시장에 진출하였다. 주요 고객사인 HP 사의 레이저 프린터 출시에 따라 동사는 부품 개발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에 통합공장을 증축하여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그림 18. 파커스의 생산 사업장



출처: IR 자료



■ 신성장 동력을 위한 LED 제품군 다각화

코로나 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외선 살균 및 소독 제품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DNA(또는 RNA)를 파괴할 수 있는 UV-C(280~200nm) 파장이 이용되고, 동사는 20년 이상 축적해온 LED 기술력을 적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UV-C 효율이 30% 이상 높은 UV-C LED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UV-C LED 제품은 각종 살균기에 적용되고 있다. 2021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동사의 ‘UVC 쉴드박스’ 제품은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이는 센서 감지형 자동 개폐 방식의 살균 박스로 살균하고자 하는 물품을 넣고 5분간 기다리면 4개의 강력한 UVC 칩과 클린 효과를 가진 2개의 UVA 칩을 통해 99.9% 살균되는 것이다. 지갑, 차 키, 스마트폰 등 각종 소지품을 한 번에 살균 소독할 수 있는 동사의 제품은 국내 영화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9. UV-C 파장을 이용한 살균기(UVC 쉴드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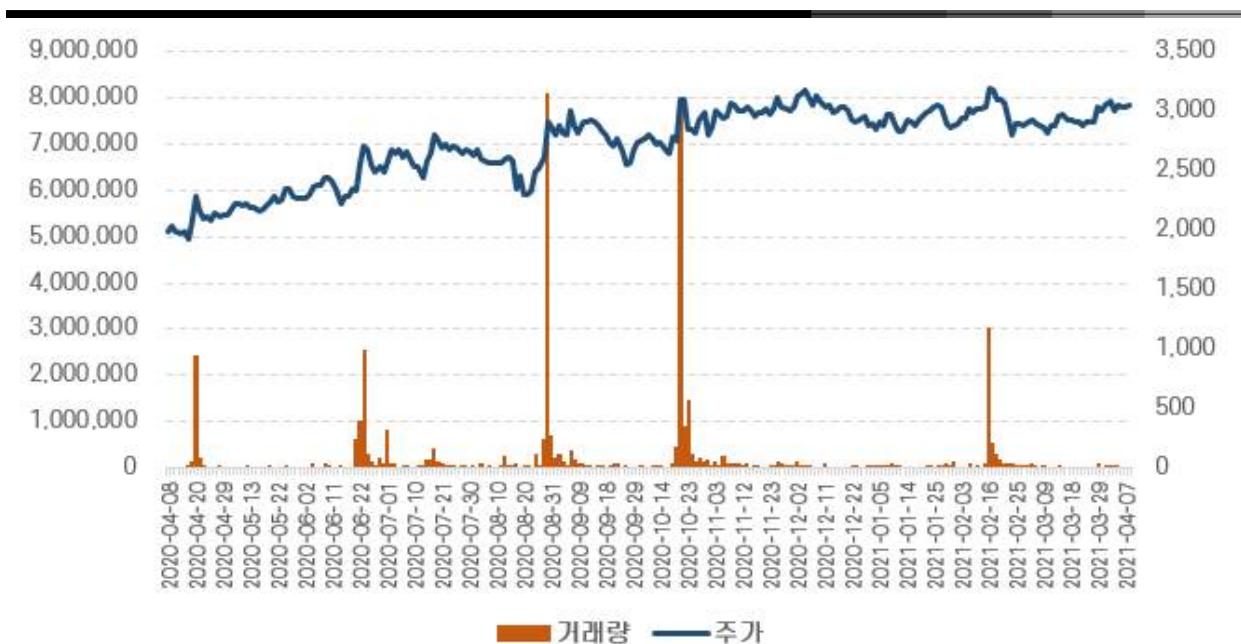
출처: 알록(Aalok) 홈페이지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4.)